

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 올해 수소버스 총 45대, 세종시 버스 정규노선에 투입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주)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하여 한글 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 계획(안).
 2. 세종시 수소버스 디자인(안). 끝.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 **행사 개요**

- (時/所) '24.5.2.(목), 15~16:00 / 세종대평 수소충전소(대평동 586-25)
- (참석자) 환경부, 세종시, 세종시의회, 행복청, 업체 등 약 30명
 - (환경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등
 -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등
 - (세종시의회) 이현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홍락 도시계획국장 등
 - (업체) 코하이젠 김세호 대표이사,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사장, (주)세종교통 이창덕 대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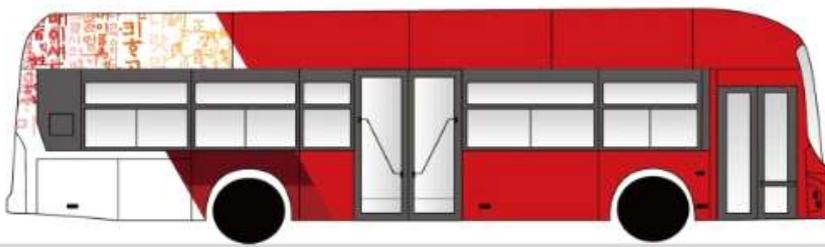
□ **시간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10	'10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사회자
15:10 ~ 15:15	'5	사업경과 보고	코하이젠(주) 상무
15:15 ~ 15:20	'5	기념사	코하이젠(주) 대표이사
15:20 ~ 15:35	'15	축사	세종시 → 환경부 → 세종시의회 順
15:35 ~ 15:45	'10	커팅식 및 기념 촬영	참석자
15:45 ~ 16:00	'15	충전소 시찰·시연	사회자 / 설비동

※ 시간 일정은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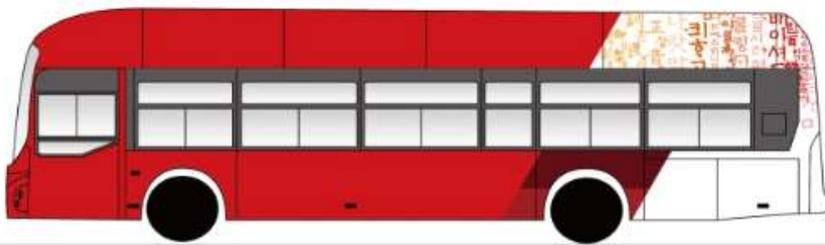
인도면



전면



차도면



후면

